코로나19 뚫고 수출 반등

▲ 한국 수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사진은 부산항 전경. 사진=shutterstock

수출이 코로나19 사태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증가율도 재작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요 수출품이 일제히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미·중 갈등과 같은 위험 요인이 아직 상존하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난 9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 늘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자 7개월 만에 성장세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9월 수출액은 480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늘었다. 증가율도 2018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1% 늘어난 391억7,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88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 반등엔 지난해보다 2.5일 더 많았던 조업일수의 영향도 있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도 20억9,000만 달러로 총수출액, 일평균 수출액 모두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4.3% 늘며 7개월 만에 반등했고 중국 8.2%, 미국 23.2%, 유럽연합 15.4% 등 4대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90억 달러로 11.8% 늘었고, 그간 부진했던 자동차는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3.2%의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경기변동에 민감한 일반기계도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0.8%늘면서 수출 비중 1, 2, 3위 품목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저유가 영향 등으로 석유화학과 석유제품은 부진이 지속됐다.

산업부는 주요국들의 경제활동이 회복하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다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 등 위험요인이 여전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쓰레기, 5년 뒤엔 버릴 곳 없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놓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은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인천은 지난 21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매립 종료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공모에 착수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시에 '4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공동 매립지 건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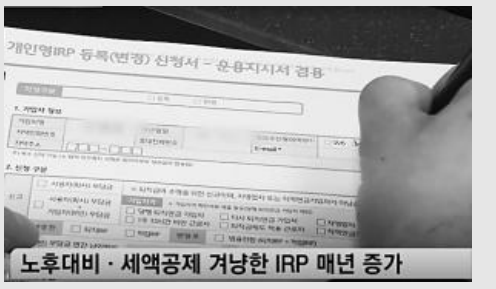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와 3개 지자체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사용 중인 3-1 공구는 103만 3,000m² 면적에 1,819만t을 매립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3일 매립을 시작해 2020년 8월 말 현재 29.5%인 536만 4,000t을 매립했다. 4자 합의안에 매립장 사용은 종료 시까지다. 2025년 매립 종료와 관련해 인천은 연평균 매립량(299만t)을 감안할 때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에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 인천의 자체 매립지, 서울·경기 공동 매립지 확보 계획과 관련해 "불가능하다" 고 단언했다.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매립지 조성 시 최소 6~7년, 평균 10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 지난 8월 말 현재 29.5%가 매립됐다.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발생 쓰레기를 처리하는 난지도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1992년 김포매립지에 조성됐다. 면적이 2,074만 9,874m²로 세계 최대 규모다. 2016년 매립 완료가 예상됐지만 종량제 시행과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으로 반입량이 줄면서 전체(1~4매립장)의 52%만 사용해 4차 합의를 통해 연장됐다. 운영 노하우와 첨단 기술이 결합돼 폐기물 처리 환경시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예금보다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 IRP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수익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SBS화면 캡처

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수익률은 극히 저조하고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들은 꼬박꼬박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SBS에 따르면 매년 노후대비와 세액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2조5천억여 원이던 IRP는 2017년 3조1,600억 원대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5조 원을 훌쩍 넘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6조2,3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2% 넘게 성장했다.

이처럼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하는 반면 수익률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개 증권사의 IRP 평균 수익률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가 넘는 곳은 단 두 곳뿐이며 은행 정기예금보다 낮은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에도 증권사들의 수수료는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기준 지난해 말보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난 곳은 모두 6곳이다. 수익률은 저조한데도 수수료로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의 무관심과 운용사들의 고객관리 미흡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디폴트 옵션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